

농심, 백산수 새 모델로 배우 박서준 발탁

농심이 백산수 새 모델로 배우 박서준을 발탁했다. 회사 측은 “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는 박서준씨의 모습이 백산수에서 옹호하는 백산수의 이미지와 잘 어울려 모델로 선정했다”며 “남녀노소 세대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사랑받고 있는 만큼, 백산수와 함께 건강한 이미지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관광협회 양무승 회장, ‘생존’ 화두 던지며 서울관광 리빌딩



코로나19 이전 국내외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서울 명동거리(왼쪽)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한산해진 현재 명동의 풍경이 대비된다. 사진제공 | 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관광협회

“서울관광 정상화로 전국 광역시도 회복 주도”

“서울시관광협, 관광 회복 길잡이”
5월 이후부터 해외교류 회복 전망
지원금 165억…추가 확보도 나서
관광중사자 복귀 위한 지원 검토



양무승 회장

서울시관광협회의 26대 양무승 회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하면서 당면과제로 내세운 것은 ‘생존’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관광 생태계가 와해되면서 업계 최대 과제가 ‘살아서 버티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관광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서울 관광업계의 피해는 단순히 시장의 붕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여행업, 관광호텔업부터 관광식당업, 면세업 등의 관광편의시설업, 관광통역안내사 등 관광서비스업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관광산업 전체와 전시 공연 등 연관 산업도 어려워졌다.

●관광산업 조기정상화에 여력 총동원

세계관광기구(UNWTO)는 세계관광 시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을 시작해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 최소한 3년을 예측했다. 팬데믹 3년에 이어 다시 회복하는 데 3년 등 6년을 감안할 사업자나 종사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가늠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렇듯, 서울의 관광산업은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린 업계, 무너진 생태계, 적막한 고용노동시장 등의 삼중고를 맞고 있다. 양무승 회장은 “서울관광이 회복의 길로 들어서야 지역관광 시장도 길을 찾을 수 있는데, 전무후무한 업축함을 이겨낼 방법을 찾고 지혜를 모으는 일이 급선무”라며 “서울시관광협회가 회복의 길잡이 역할을 맡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시장에 메시지를 주면서 업계가 회복을 위한 남은 여력을 끌어 모으도록 격려하고 예측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며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해야 할 업무의 방향을 설명했다.

서울시관광협회는 이번 5차 대확산이

정점을 지나는 5월 이후부터는 서서히 국제교류의 하늘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공사, 주한외국관광청, 인아웃 바운드 대행사들과 긴밀한 교류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여러 요청사항을 관계기관에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2월에 양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은 국회관광산업포럼과 주한외국관광청협의회 간담회에서 입국자 격리해제를 제안하면서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접종 완료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조치가 나오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민·관·산·학·연 거버넌스 인프라 활용

서울시관광협회는 서울 관광업계의 회복 탄력성 제고에 쓰일 서울시의 직접 지원 예산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 관광체육국, 서울관광재단과 함께 올해 관광업체 회복지원금 165억 예산을 확보해 현재 5500여 업체에 각 300만 원씩 현금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추경을 통한 추가지원금 확보에도 발 벗고 나섰다.

5000여 회원사와 서울 관광업계의 각

오를 다지는 ‘서울관광인 전진대회’와 관광 종사자 복귀를 유도, 지원하기 위한 ‘서울관광업계 고용지원센터’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서울관광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차원에서 재도약 방안을 마련해 이번 6월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공약화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관광협회는 민·관·산·학·연의 거버넌스 인프라를 총동원해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19년 서울을 찾은 135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서울을 찾고, 서울관광 2000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이정표이자 길잡이 역할이 기대된다.

양 회장은 “서울이 전국 광역시도의 만행이니 서울시관광협회도 전국관광협회와 업종별 직능협회 등 30여 관광관련 주요 단체의 만행 노릇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며 “먼저 일어서서 먼저 길을 닦아 우리 관광산업이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한국맥도날드, 신임 대표에 김기원 현 CMO 선임



한국맥도날드가 27일 신임 대표이사로서 현 한국맥도날드 CMO(최고 마케팅 책임자) 김기원(사진) 상무를 선임했다. 공식 취임 일자는 5월 1일이다. 김 신임 대표는 코카콜라와 P&G 등에서 20년 이상 마케팅 전략 및 실행을 담당했으며 2020년 4월 한국맥도날드 CMO로 합류 후 ‘The BTS 세트’ 등의 브랜드 마케팅을 총괄한 바 있다. 김 신임 대표는 “기존 고객 중심 경영을 더욱 강화해 성장 모멘텀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우수한 인력과 기업 문화를 기반으로 편리한 고객 경험과 더 나은 가치를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2년간 한국맥도날드를 이끌어온 앤토니 마티네즈 대표는 호주 맥도날드 대표이사로서 자리를 옮긴다.



전자랜드 ‘파워센터 뉴코아일산점’ 오픈

전자랜드가 최근 경기 일산에 ‘파워센터 뉴코아일산점’을 오픈했다. 뉴코아일산점 9층에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 구역은 PC·모바일·노트북 등의 IT 가전과 TV존, 안마의자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건강 가전존으로 구성했다. 두 번째 구역에는 대형 주방가전존, 소형 주방가전존, 의료관리가전존, 계절가전존 등을 마련해 소비자가 여러 가전을 한 번에 비교하기 쉽다. 회사 측은 “소비자가 여러 가전을 비교 체험 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도록 파워센터 매장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고 했다.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어린이 평발, 심하면 보행 어려움 소아정형 전문의에게 진단 받아야

발은 발바닥 안쪽 가운데 부분이 아치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부위가 낮거나 거의 없어 편평한 상태를 평발 또는 편평족이라고 한다. 뒤꿈치가 밖으로 벌어지면 편평외반족이라고 부른다.

대부분 6~10세까지는 발바닥 아치의 완성이 이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평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체육 활동 등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전문의를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 평발의 경우 걷거나 오래 서 있을 때 피로감은 물론, 통증이 심할 경우 보행 등의 일상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진단은 진찰과 함께 방사선 사진 및 족저압 분포 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증상이 있는 유연성 평발에서 종아리 근육이 짧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보통 물리 치료와 깔창 등을 통해 증상을 조절할 수 있으나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심한 평발이나 동반 질환, 변형에 대해서는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수술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변형의 정도와 동반 문제에 따라 가장 적절한 술식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발은 보조기와 특수 신발, 깔창 등은 사용 목적이 변형 교정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전문의 진단 없이 보조기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은 피하기를 당부한다. 대부분의 소아 평발은 적정 체중 유지, 크기가 잘 맞고 쿠션이 충분한 신발 착용하기만으로도 생활 속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서울원병원 유원준 병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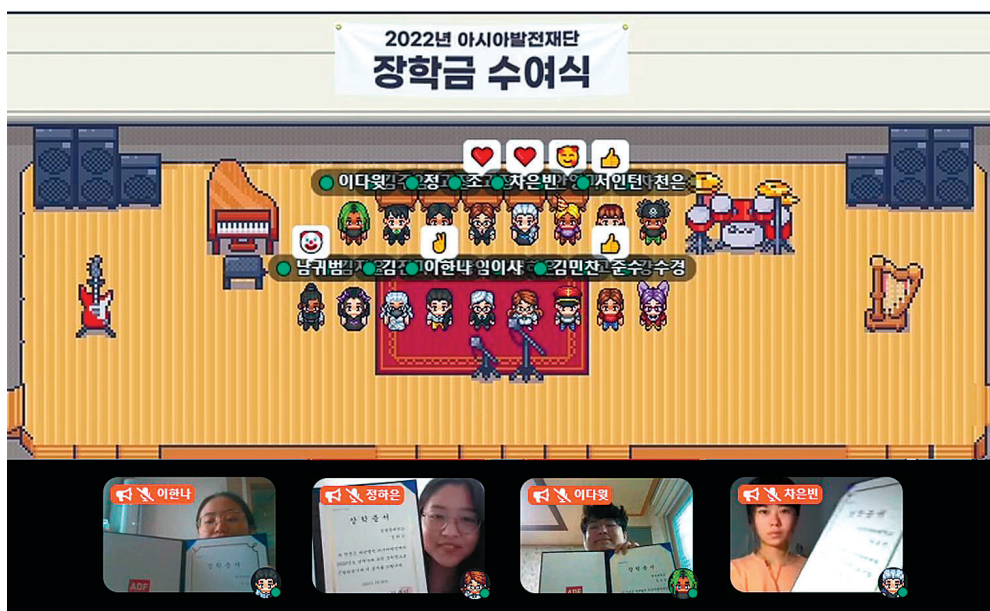
아시아발전재단, ‘메타버스 장학금 수여식’ 개최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서 열려
ADF 장학생 13명에게 장학증서 전달
향후 재단과 장학생 소통 채널로 활용

비영리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아시아발전재단(ADF·이사장 김준일)은 26일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Gathertown)’에서 ‘2022년도 ADF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아시아발전재단은 이날 대표 인재양성사업인 ‘ADF 드림 장학금’ 수혜 장학생 11명, ‘엄마나라 유학 장학금’ 수혜 장학생 2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선발된 아시아발전재단 장학생들은 일정 지속수혜요건을 충족하면, 졸업시까지 최대 4년간 장학금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서 비대면 행사로 진행된 이날 수여식에서 장학생들은 영상 자기소개, 랜선 사무국 견학, 장학생 교류 등 색다른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메타버스 사무국 공간 곳곳에는 장학생



아시아발전재단(ADF)은 26일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서 ‘2022년도 ADF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선발된 학생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 장학증서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 아시아발전재단

들이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요소를 담았다. 향후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 재단과 장학생 간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로 활용할 예정이다.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한 조남

철 재단 상임이사(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는 “다양성이 무기인 오늘날 ADF 장학생 여러분들이야말로 한국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인재”라며, “여러분들이 아시아의 미래를 이끌어나

는 인재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재단에서도 응원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시아발전재단은 앞으로도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발맞춘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사업 전개에 메타버스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아시아발전재단의 명칭과 설립 목적에 걸맞게 아시아 사회의 목소리를 담고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아시아의 목소리(가칭)’ 등을 구상하고 있다.

재단법인 아시아발전재단은 ‘락앤락’ 창업주인 코비그룹 김준일 회장이 2016년 2월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아시아 국가간의 협력과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국내외 인재양성사업, 교류사업, 문화사업, 의료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중언어교실 지원, 대한태권도협회 다문화 가정 태권도 교육 보급 등 한국사회 문화다양성 증진 목적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